국토위 '대장동 방지법' 여야 충돌

고성·삿대질 속 파행 중단
여 "야당 이제 태도 바꿔어"
야 "법안으로 대장동 물타기"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방지법'을 둘러싸고 22일 국회 국토위가 파행을 빚었다. 법안 및 예산안 상정을 협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는 여야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반 늦게 가까스로 열렸다. 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과 삿대질이 이어지자 회의는 30여 분 만에 중단됐다. 쟁점은 여당에서 발의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상정 여부였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등의 상정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대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야당은 여당이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법률 재개정 문제는 상시로 할 수 있는 반면 내년 예산 심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다"며 "여당이 법안 핑계로 예산 심의를 보이콧했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여당이 대장동 사태를 몇 개 법안으로 물타기 하고 셀프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고 맹공했다.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은 정말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으로 알았다"며 "그런데 야당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지난주 회의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자리에도 안 계셨느냐"고 책임을 따져 물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상대 당 간사를 비방하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박성민 의원이 먼저 "여당 간사가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이라며 조응천 의원을 직격하자, 박상혁 의원은 "해괴망측한 얘기"라며 "여야 간 합의를 항상 번복하는 야당 간사에게 먼저 물어봐라"라며 야당 간사인 송석준 의원을 정조준했다. 급기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이 또다시 거론되자 장내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김은혜 의원이 이 후보가 시장 시절 민간 사업자 이익을 추가 확보토록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제보를 누가 해줬냐.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발언하라"며 "면책특권을 이용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기자회견장에 가서 하라"고 몰아세웠다.

상황이 악화하자 이헌승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중재 노력을 할 테니 여야 간사 간 조금 더 논의해보자"며 회의를 급하게 마무리했다. 여야 간 충돌로 이날 회의에선 법안과 예산안 모두 상정되지 못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통합 협상 대표단 상견례에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왼쪽부터), 열린민주당 협상단장인 정봉주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협상대표인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열린민주 통합 연내에 마무리한다

당 대 당 통합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가급적 올해 안에 통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통합 협상 대표단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상견례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통합은 양당 당원들의 최종 의견을 물어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당 통합 협상 대표단은 "대선 승리와 사회개혁을 위해서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과정에서 다른 민주 개혁진영에도 문호를 열고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심상정 "안철수, 조건없이 만나자"…제3지대 공조 제안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하면서 제 3지대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심 후보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제 3지대의 공조를 시작하겠다"며 "안철수, 김동연 후보는 출마 선언을 통해 기득권 양당 정치의 틀을 깨야 한다고 했는데, 뜨겁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후보, 원내, 정당, 시민사회계 누구라도 시대 교체, 정치 교체 뜻을 같이한다면 만날 것"이라며 "첫 만남은 안 후보께 제안한다. 이른 시일 내 조건 없이 만나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연대를 포함,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야권의 김동연 후보 가운데 심 후보가 먼저 제3지대 공조를 위해 뭉치자고 제안한 것이다.

다만 단일화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단일화는 언급한 적이 없다"며 "양당 체제 종식과 시대 교체를 위해 어디까지 함께 하고 어떤 노력을 할지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작해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안 후보에 이어 김 후보까지 차례로 만남을 제안하려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김종인 빠진' 선대위 인선안 막판 혼돈

金 "하루 이틀 시간 더 달라"
尹 확정 발표 하루만에 이상기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 인선이 막판에 덜컹거리고 있다.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인선에 대한 최고위 추인 절차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상기류가 감지된 것이다. 윤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로 이뤄진 '3김(金) 삼각축' 진용 확정을 발표한지 하루만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22일 윤 후보가 직접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에 선대위 최고사령탑 3인의 인선안을 올려 '3김'의 합류를 공식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는 뜻을 밝혀오면서 상임선대위원장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인선안만 최고위에 올렸다. 김한길 전 대표의 경우 후보 직속이라 최고위 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이준석 당 대표와 김병준 전 위원장 두 분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안을 최고위에 올리겠다"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제가 올렸는데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그거는 본인께서 최종적으로 결심하시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초 이날 '3김' 인선안이 최고위에서 순탄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기대를 깨는 발언이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전날 윤 후보가 '3김 인선'을 공식화하자 주변에 "아직 정식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전날 이준석 대표에게 연락해 이날 최고위에 본인의 인선안은 올리지 말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후보 측에서 최고위 시간을 2시간가량 늦추자고 이 대표에게 연락하자, 이 대표가 '김 전 위원장이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윤 후보 측에 전했다. 이에 김 전 위원장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이준석 대표와 선대위 종합상황본부장이 유력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이날 오전 김 전 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만났고 이 자리에서 "하루 이틀 더 생각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주변의 설득에도 총괄선대위원장 수락을 유보한다는 의사를 고수한 것이다.

당 주변에서는 합류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이와 관련, '원톱' 진두지휘 그림을 그려온 김종인 전 위원장이 김병준 전 위원장, 김한길 전 대표와 '3김'이라는 프레임으로 한묶음으로 거론되는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말도 돌았다. 윤 후보 측은 당황해하며 진의 파악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후 4시께 임태희 전 실장이 김 전 위원장의 종로구 개인 사무실을 한 차례 더 찾기도 했다.

일부 측근들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배제하고 '2김' 체제로 가야 한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나, 윤 후보 측은 "김종인 전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연합뉴스

李 "뉴딜 같은 새로운 대안"
尹 "정부 할일·말아야할 일 구분"

대선후보 국가정책발표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주최 '대선후보 국가정책발표회'에서 각자의 미래 비전과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거론하며 '정부의 역할'을, 윤 후보는 '자유', '정부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각각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정부의 역할 확대를, 윤 후보는 '작은 정부'에 방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이 후보는 "위기 속에는 반드시 기회의 요소가 있다"며 "이 요소를 잘 활용해서 위기 국면을 잘 관리하면, 다른 나라보다 반 발짝 앞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국가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위기 국면, 전환적 국면에서는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순서가 바뀔 수 있다"며 "저는 이것을 전환적 성장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대공황 당시 뉴딜 정책을 예로 들며, "질적으로 다른 정책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힘을 실어주고 분배를 강화하고 국가 역할을 확대하는 등 완전히 반대로 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새로운 시대, 희망이 있는 시대, 지속 가능한 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체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기초과학·첨단기술에 대한 국가의 투자와 지원, 신재생에너지 생산·판매 인프라 구축, 디지털 전환 관련 미래형 인재 완성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 권력에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승자 독식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책임이 중요하다"면서 '연대의 리더십'과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복지는 국가의 필수적인 책임"이라면서, 취약계층 복지 강화, 아동·청소년 보육 및 교육 국가 책임제를 언급했다. 또한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정한 입시·채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라브즙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체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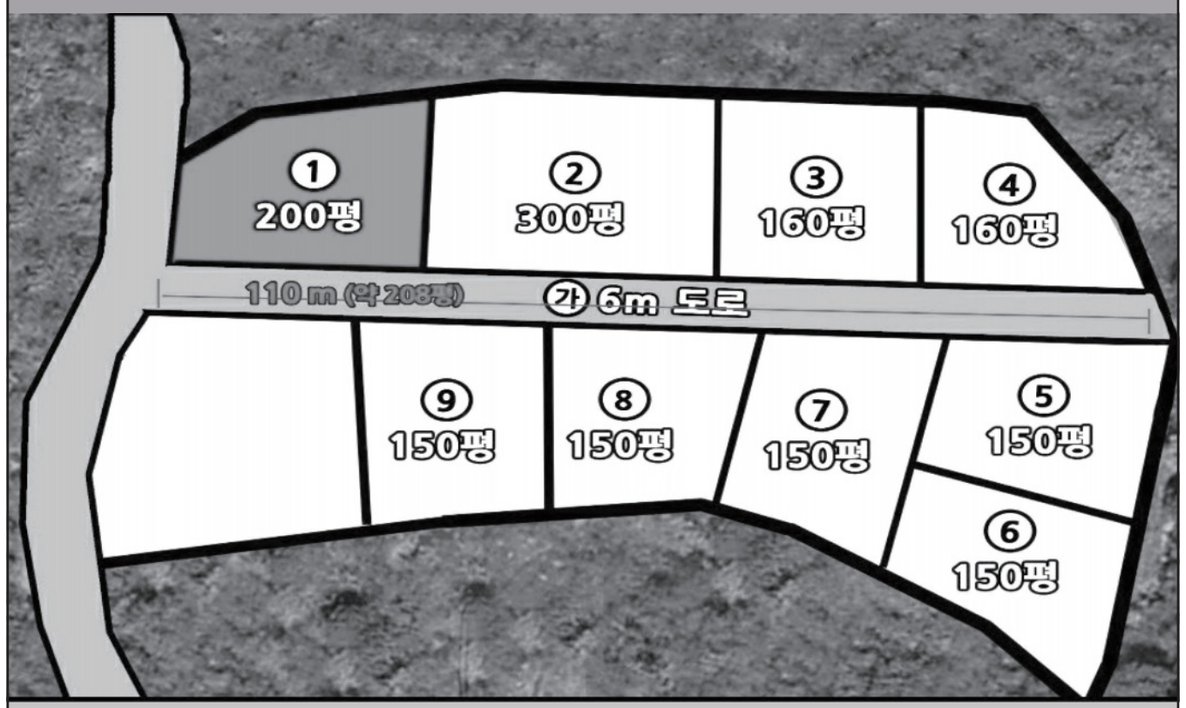
2 전원 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럽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m2(1.276평) 매 ㎡ 6십5만원

4 임야 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옹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자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150평, 200평, 500평, 950평),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

산행안내
11월28일(일)
▲광주kj산악회 11월28일(일) 강원도 춘천,삼악산645m(주봉용화봉,청운봉,동선봉)&남이섬,트레킹산행, 염주체육관03:30,동아병원03:35,롯데백점03:40,광주역03:45,문예후문03:55,비엔주차장04:00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